

큰 위엄을 당하였을 것이다. (金大建) 안드레아가 “나는 조선 사람인데 당신들의 모호를 청합니다” 라고 佛語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장교들은 몹시 놀랐다. 이 모호가 관대하게 배풀어졌다. 領事는 그를 가마에 태워 어떤 신젓점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金大建) 안드레아는 급히 고틀랑 (Gotteland)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²⁸⁾ 이 선교사는 동료 중 한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²⁹⁾

『나는 (金大建) 안드레아를 반아들인 교우집으로 급히 서둘러 갔는데, 이 교우는 안드레아에 대하여 그 자신보다도 더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드레아에게 선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도와 줄 수 있을 만한 돈을 주게 하고, 다음에는 그의 배로 데려다 주게 하고는, 그 교우집에서 그를 잠실동안 반아들인 것을 관현이 죄로 몰지 않을까 하여 집을 집어 먹고 있으니까 그 집으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 공포증은 중국인들에게는 약간 유행성을 띤 것이어서 우리는 이 가엾은 교우들에게 대하여 마음을 많이 써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위험한 처지를 당한 처음 열댓동안 그들 몹시 필요로 하면 그 선원들에게 (金大建) 안드레아를 다시 보내고 나서 자신이 착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그들의 배로 서둘러 갔습니다. 신부님, 거의 모두가 순교자들의 아버지요, 아들이요, 친척인 이 12명의 교우들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거의 온 가족이 희생당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11세 된 어린 아나까지도 순교를 통하여 하늘 나라로 가기로 원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告白聖事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내가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선 배를 좀 정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배의 준비가 끝나자 내게 알려와서 나는 이튿날 미사聖祭를 드리기 위하여 배에서 밤을 지낼 각오를 하고 저녁에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교백하기를 몹시 원하는 우리 착한 교우들에게 우선 교백성사를 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들이 신

28) 이 편지는 外邦傳教會 古文書庫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틀랑(Gotteland) 神父의 편지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下記註 29 참조.

29) 1845年 7月 8日(양력)字 서한. APF XIX(1847), p. 226~231.

부를 보지 못한 것이 6,7년이 되었으니, 조선의 마지막 선교사 영베르(Imbert) 주교님과 모방(Maubant), 샤스탕(Chastan) 신부들이 1839년에 순교한 때문입니다.

이 착한 교우들이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내가 조선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였으므로, 나는 통역을 거쳐서만 교백을 해야 하는 경우에 교백성사의 완수성에 대하여 책에서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경우에 주어지는 寬容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백을 하지 못한 것이 하도 오래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고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충분히 배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의지에 앉았고, 우리 副祭가 맨 첫번으로 왔읍니다. 副祭는 교백을 끝낸 다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차례로 그의 옆에 와서 무릎을 꿇는 선원들의 통역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解脫神父와 교백하는 교우 사이 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백성사를 주기에 앞서 나는 우선 통역을 시켜 이런 경우에는 모든 잘못을 교백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거듭 알렸으나 한결 간 이 “모두 교백하렵니다” 하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백으로 인하여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잘못을 훌륭한 열성으로 교백하였습니다. 끝내고 나니 거의 미사 드릴 시간이 되었읍니다. 배는 전날부터 꾸며졌었으므로 마지막 준비는 이내 끝났읍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우상승매자가 가득 차 있는 대도시 근처의 아주 조그마한 배 위에서, 그렇게도 오랫동 안 참여를 못하다가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몇몇 교우에 둘러싸여 거룩한 제사를 드렸읍니다.』

조선신자들은 며칠 후 큰 기쁨을 또 한 번 맛보았는데, 그 기쁨은 프랑스에서 최근에 도착한 선교사를 데리고 그들을 만나러 온 페레올(Ferréol) 주교의 도착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牧者를 보고 그의 降福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신부 한 명이 그들을 구원하러 올 용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감격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